

전일동향

전일 대비 10.50원 하락한 1,483.1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0.50원 하락한 1,483.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60원 하락한 1,487.00원에 개장했다. 유가 안정과 6거래일만의 외국인 주식순매수로, 1,483.1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7.5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87.00	1504.50	1482.40	1483.10	1486.00
	엔화	939.03	942.89	927.24	927.55	-
	유로화	1723.41	1729.88	1697.92	1698.1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3	-3.8	-9.13	-17.47
	결제환율(수입)	-0.34	-2.49	-7	-13.9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전쟁 격화 우려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3.10) 대비 26.50원 상승한 1,508.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전쟁 격화 우려로 상승 전망한다. 지난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격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고, WTI 또한 배럴당 99달러에 마감했다. 이에 이란 역시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유가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월 FOMC를 통해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대외 요인들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강하게 견인하면서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00원선에서 외환당국의 경계감과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매도물량 유입 가능성은 추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96.25 ~ 1510.2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801.8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6.50원 ↑
	■ 美 다우지수 : 46225.15, -768.11p(-1.6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7.1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46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